

고대영어의 어순 유형

현 완 송*

목 차

I. 서론	III. 고대영어의 어순 유형
II. 고대영어 어순의 의의	IV. 결론

I. 서론

Baugh and Cable(1993:51)도 지적하고 있듯이 고대영어는 중세영어를 거쳐 현대영어로 발전해 오기까지 철자, 발음, 어휘, 문법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풍부했던 고대영어의 굴절체계(inflexional system)가 중세영어를 거쳐 현대영어로 이르는 동안 현저하게 평준화(levelled)되었다는 점이다. 즉 비교적 풍부한 굴절형태를 유지하여 종합어(synthetic language)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고대영어가 고대영어말기에서부터 중세영어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굴절형태가 평준화 또는 탈락하고, 분석어(analytic language)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영어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Mitchell(1995:25)도 언급하고 있듯이, 고대영어에서는 문장 내에서의 낱말들의 문법적 관계가 주로 굴절형태에 의존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영어의 경우 어순은 문법적으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나타났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고대영어의 어순은 문법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Fries (1940:25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 Old English practically all the grammatical relationships to which the language gave attention could be expressed by inflections and nearly all were so expressed. Some were expressed by function words, but none, as far as I know, actually depended upon word order for expression.

Robertson(1954:279)도 유사한 견해를 피력한다.

*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Since Old English, following its inheritance of Indo-European structure, was an inflectional language and largely synthetic, it depended heavily on the variations in the forms of words to show relationship within the sentence...

Robertson(1954:285)은 또한 고대영어의 어순은 자유로웠다고 말하고 있다. Fries등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대영어의 경우 의미는 굴절형태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어순에는 아무런 문법적 의의가 없었다. 둘째 고대영어의 어순은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Fries등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고, 고대영어 어순이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대영어 어순의 일반적인 유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II. 고대영어 어순의 의의

고대영어에서는 문장 내에서의 구성소들의 문법적 관계가 주로 굴절형태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성소들의 배열순서 즉 어순이 현대영어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웠다. Fromkin and Rodman(1988:306)의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Se man sloh þone kyning..
- b. Ðone kyning sloh se man.
- c. Se man þone kyning sloh.
- d. Ðone kyning se mann sloh.
- e. Sloh se man þone kyning.
- f. Sloh þone kyning se man.
- e. The man killed the king.'

위의 (1)의 문장들에서 man(=man)은 정관사 se의 주격형 se의 수식을 받고 있어서 항상 주격으로 나타난다(man의 주격형도 man이었음). kyning (=king)은 정관사 se의 대격형 þone의 수식을 받고 있어서 항상 대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의 경우 actor, action, goal의 관계가 구성소들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위의 6문장은 문장의 구성소들의 배열순서에 관계없이 모두가 문법적인 문장들이며,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대영어의 경우 문법적 관계가 주로 굴절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고대영어의 어순이 자유로웠다고는 하나 이를 절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교적 풍부한 굴절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영어의 문장에 나타나는 구성소들은 대체로 일

정한 규칙에 의해 배열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고대영어의 부정사(negative) *ne*는 예외없이 한정동사(finite verb)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 종속절에서는 한정동사가 문미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살펴 본 Fries 등의 견해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로 하겠다.

첫째, 고대영어에도 구성소들의 문법적 관계가 굴절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어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문장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원시인도-유럽어(Proto-Indo-European)의 경우 주격(nominative), 속격(genitive), 여격(dative), 대격(accusative), 도구격(instrumental), 처격(locative), 탈격(ablative), 호격(vocative) 등 8개의 격이 있었다. 이것이 고대영어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주격, 속격, 여격, 대격, 도구격 등 5가지의 격만 남게 되었다. 그나마 도구격의 경우 정관사 *se*의 남성 및 중성·단수·도구격인 *þy*(또는 *þon*), 지시사 *þes*(=this)의 남성 및 중성·단수·도구격인 *þys*, 의문사 *hwæt*(=what)와 *hwa*(=who)의 단수·도구격인 *hwȳ*(또는 *hwon*), 그리고 남성 및 중성·단수·강변화 형용사의 경우(이 경우 여격 어미는 *-um*이고 도구격 어미는 *-e*이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여격과 동등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기능이 여격으로 전이되었다. 또한 주격과 대격도 그 형태가 여러 경우에서 동일해졌기 때문에 고대영어들에 들어와서는 구성소들의 문법적 관계가 굴절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어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문장들이 많아졌다. 아래의 문장들을 보자.

(2) a. ... *þā gemetton hie twēgen ealde weras.* (Ha.)¹⁾

s o

'then they met two old men.'

b. ... *þæt hie þā men ūtlædan woldon and him tō mete dōn.*

s o (S.A.)

'that they wanted to lead out the men and use them for food'

c. *Hie þā, þā wif ealle tōgædere gecierdon.* ... (Oro.)

s o

'They then forced all the women together to submit'

위의 예문 2a-2c의 경우, 문맥을 통하여 그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처럼 홀로 나타나게 될 경우 형태만을 보고서는 어느 것이 주어이고, 어느 것이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2a-2c에서 밑줄 친 부분은 그 주격형태와 대격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문법적 관계가 형태에 조금도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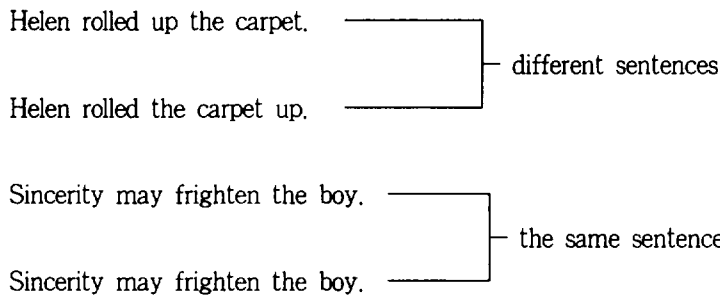
1) 문장뒤에 있는 영어약어는 약어목록에 있는 고대영어의 작품을 나타낸다.

의 문장들은 모두 주어가 목적어에 선행함으로써 주어, 목적어간의 관계를 결정짓고 있다. 즉 문장의 구성소들이 전적으로 어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영어의 어순은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의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Fries등의 위의 주장은 굴절형태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인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위의 1a-1f의 문장들은 그 구성소들의 문법적 관계가 모두 동일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각각 조금씩이나마 다르다. 문장의 의미를 문장의 개념적 의미인 명제(proposition)에 국한시킬 때 위의 1a-1f의 문장들은 그 의미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Leech(1981:23)가 분류해 놓은 여러 의미들 특히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와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1a-1f의 문장들은 모두 다르다.

또한, Halliday(1985)등의 체계문법(systemic grammar)학자들의 문장 분석 즉 모든 문장은 주제(theme) + 논술(rheme)로 구성되고, 이때 주제는 심리적 주어(psychological subject)로서 전언의 관심요소(that which is the concern of the message)가 되는데 이것이 항상 문장의 첫머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분석의 관점에서 위 1a-1f의 문장들은 모두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Hurford and Heasley (1983)와 Bolinger(1977)에 의해서도 견지되고 있다.

먼저 Hurford and Heasley(1983:17)는 구성소와 구성소들의 배열순서까지 동일해야만 동일한 문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Bolinger(1977:4) 역시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의미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만약 문장의 의미를 진리치(truth value)가 준거가 되는 명제에 국한시킨다면 "John ate the spinach."와 "The spinach was eaten by John."은 행위자(agent)와 수동자(patient)가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세상사(the same event in the real world)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문이다. 그렇다면, "John sold the house to Mary."와 "Mary bought the house from John."도 하나의 동일한 세상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즉 명제가 같기 때문에 동일문이라고 해야 하며 따라서 하나의 기저구조에서 도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의 1a-1f의 문장들은 각기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문장들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형태론적 형태에 관계없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고대영어 어순이 전달해 주는 넓은 의미에서의 의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대영어의 어순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문 1a-1f는 문장의 구성소들이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니다. 즉 그 내면에는 위의 1a-1f의 문장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 1a는 고대영어에서 기본어순(basic word order)이며, 문장 1b와 1d는 목적어가 화제화(topicalization)된 경우이고, 문장 1e와 1f는 동사의 행위가 강조된 것이다. 이처럼 고대영어 어순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고대영어에서 부정사 ne가 예외 없이 한정동사 앞에 위치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편 Gardner(1971:14)는 고대영어의 어순이 문법적 의의를 갖지 못했고, 따라서 자유롭게 나타났었다고 생각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t is perhaps understandable that historians of the language exchange somewhat misleading statements about Old English. They are, after all, not specialists in that period but are interested primarily in the relationship of Old English to Middle and Modern English.

또한 Gardner(1971:15-17)는 고대영어 어순이 문법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해 온 사실이 고대 영어 연구가 주로 운문을 중심으로하여 행해져 온 데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하고 있다.

One reason for the historian's easy acceptance of the idea that word order is unimportant in Old English is undoubtedly the fact that much of the significant work in the field has concentrated on the poetry. *Beowulf*, *Widsith*, and *The Seafarer* have aroused more interest than the *Anglo-Saxon Chronicle*. A study of poetic patterns, however, contributes little to an understanding of prose structure. ... The syntax of poetry does not give trustworthy syntactical information.

Mitchell(1978:60)도 고대영어 어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다.

But, like their successors, the Anglo-Saxon poets used the language much more freely than the prose writers did.

마지막으로 Gardner(1971:17)는 고대영어 어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Reading Old English, however, has led me to the belief that, for syntactic signalling, word order was as important as case endings. Old English prose does not appear to me to be a haphazard conglomeration of words brought into coherence by reliance upon case endings.

필자도 Gardner의 이러한 견해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영어의 어순에 대한 고찰을 고대영어의 산문에 국한시켜 진행시키고자 한다.

III. 고대영어의 어순 유형

의형상 아무렇게나 배열되고 있는 것 같은 고대영어의 어순도 문법적으로 의의가 있었으며 또한 결코 자유롭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앞 절에서 살펴 보았다. 즉 풍부한 굴절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영어 문장의 구성소들은 일정한 양상으로 배열되고 있었는데, 본 절에서는 먼저 이러한 고대영어 어순의 일정한 양상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 보고, 이어서 필자가 관찰한 고대영어 어순의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Sweet(1898:6)은 동사의 위치를 어순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고대영어의 어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간략한 언급을 한다.

Verb-position in Old English tends to follow the same general principles as in Modern German. In independent declarative sentences, ..., the order is the same as in Modern English: but in dependent sentences the verb has end-position.

즉 Sweet는 고대영어의 통사적 특징중의 하나인 독립절과 종속절 내에서의 동사의 분포상의 차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drew(1940:1-2)는 고대영어의 산문(prose)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고대영어 어순을 세 가지 종류로 대별한다.

- a. 일반어순(common order) : Subj + Verb + Obj + Adverb
- b. 접속어순(conjunctive order) : 주로 종속절에 나타나는 유형.
- c. 지시어순(demonstrative order) : $\beta\bar{a}$ (=then), βonne (=then), $\beta\bar{e}r$ (=there) 등의 지시부사 (demonstrative adverb)로 유도되는 절에 나타나는 어순.

Andrew의 이러한 분석은 고대영어 산문의 전형적인 통사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곁들여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어순은 서술형태의 주절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현대영어의 어순과 대체로 동일하다.

- (3) a. $\beta\bar{e}s$ $geonga$ $monn$ is $forliden$ (Ap.)

S V C

'this young man is shipwrecked'

- b. Ic $herige$ $\beta\bar{e}$ (Ha.)

S V O

'I admire you'

clause)은 VS(O/C)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rown이 제시하고 있는 상관절은 사실 부사가 문장의 첫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구조(예 : þa geseah ic duru 'then I saw the door')로서 위의 Andrew의 지시어순(demonstrative order)에 해당한다.

한편, Traugott(1972:107-108)은 주어, 동사, 목적어, 조동사를 고대영어 문장의 주요 구성소를 보고, 고대영어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 Type 1 : Subject + (Auxiliary) + Verb + (Object) ……
 Type 2 : (X) + $\left[\begin{array}{l} \text{Verb} \\ \text{Auxiliary} \end{array} \right.$ + Subject ……
 Type 3 : Subject + (Object) …… Verb (Auxiliary)

Traugott의 제1유형은 상기 Andrew의 일반어순(common order)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Traugott의 제2유형은 Andrew의 지시어순에 해당하면서도 지시어순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여, Andrew는 문장이 지시부사로 유도되는 경우만 상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Traugott은 (X) 기호를 이용하여 의문문, 부정문 등의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도 고대영어 문장의 첫 위치는 지시부사 외에도 목적어, 전치사구 등 어떤 요소라도 등장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3유형은 Andrew의 접속어순(conjunctive order)에 상당하므로 상술은 생략한다.

Mitchell(1978:60, 1985, Vol.2 : 963)은 문장의 주요 구성소를 주어와 동사로 보고, 고대영어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눈다.

- S.V. …… : in a principal clause
 S. …… V. : after ond(=and) and in a subordinate clause
 V.S. …… : after an adverb

그런데 Mitchell의 분류도 Traugott의 그것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Andrew, Traugott, Mitchell 등의 분류는 고대영어 어순의 대체적인 특징을 전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Andrew의 경우 분류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Traugott의 경우에는 분류기준이 주어, 동사, 조동사, 목적어, 임의의 요소(X)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대영어 어순에 대한 좀 더 일반성 있는 설명을 놓치고 있다. Mitchell은 분류의 기준을 주어와 동사 두 가지에 국한시켜 좀 더 경제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역시 영어 어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를 마찬가지로 놓치고 있다. 즉, 그는 세번째 유형으로 V.S. …… (after an adverb) 어순을 설정하고 있지만, 고대영어의 동사는 부사가 문장의 첫번째 위치에 놓일 때만 뒤따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대영어 동사는 주절(main clause)에서 문장의 첫번째 구성소가 주어이든, 부사이든, 목적어이든 항상 두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Mitchell의 분류 가운데서 첫번째 유형인 S.V. ……어순이나 세번째 유형인 V.S. …… (after an adverb)어순은 실상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중복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고대영어의 주절에서 동사는 첫번째 구성소가 무엇이든 두번째 위치를 차지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또한 Jespersen(1961:53), Gardner (1971:19), Lehmann(1978:8) 등도 언급하고 있듯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여 고대영어 어순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겠다.

고대영어의 절(clause)들은 한정동사(finite verb)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²⁾

- a. 동사문두유형(verb-initial type) : V ……
- b. 동사문2위유형(verb-second type) : X V ……
- c. 동사문미유형(verb-final type) : …… V

이제 위의 유형에 속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1. 동사문두 유형

한정동사가 문장의 첫 위치에 나타나는 유형을 동사문두 유형이라고 명명하여 보았다. 고대영어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문장으로는 긍정 yes-no 의문문(positive questions without interrogatives), 긍정명령문(positive imperatives), 긍정서술강조구문(positive statements emphasized) 등이 있다. 각각의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 yes-no 의문문

- a. Wāst fū ƿone forlidenan monn? (Ap.)

V S O

'Do you know the shipwrecked man?'

- b. Wære fū tō dæg on huntnoƿe? (E.C.)

V S Adv C

'Were you on hunting today?'

- c. Canst fū ænig ƿing? (E.C.)

V S O

'Do you know any thing?'

2) 이러한 분석은 Hyun(1983:20-33)에서 처음 이루어진 바 있다.

(2) 긍정 명령문

- a. Sege mē gewislicor. ƿæt ic hit mæge understandan.
 V O Adv Adv Clause (Ap.)

'Tell me more certainly so that I may understand it.'

- b. Gewit rafe fram mē. (Ha.)
 V Adv PP

'Depart quickly from me.'

- c. Gaderiaþ ærest ƿone coccel. (Mat.)
 V Adv O

'Gather first the cockle.'

(3) 긍정 서술 강조구문

- a. Song hē ærest be middangeardes gesceape. (Cae.)
 V S Adv PP

'He sang first of (the) earth's creation.'

- b. Hæfde sē cyning his fierd on tū tōnumen. (Chr.)
 Vf S O pp Vn

'The king had divided his army into two parts.'

- c. Wæs hē, sē mon, in weoruldhāde geseted (Cae.)
 Vf S PP Vn

'He, the man, was set in secular life'

2. 동사문 2위 유형

문두에 무엇이 위치하든지 간에, 한정동사가 문장의 두번째 자리에 존재하는 모든 구문을 포함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고대영어의 문장들을 내포한다. 4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게 되겠지만, 고대영어 주절의 경우 문장의 첫 위치는 주어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보어, 목적어 등 어떤 구성소라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이때 한정동사는 대부분 문장의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게르만어에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제 이 유형에 속하는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서술주절, 지시부사 유도문, 부정 주절, 독립 Wh-의문문, 부정 명령문, 화제화(topicalization)가 이루어진 문장, 일부의 종속절, 비인칭동사구문 등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술 주절(declarative main clause)

고대영어의 서술 주절은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동사에 선행하지 않는한 보통 S+V ... 형태의 동사문이위 유형으로 나타난다.³⁾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Đū hafast gecoren þone wer þe mē wel licaþ. (Ap.)

S Vf Vn O relative clause

'You have chosen the man that pleases me a lot.'

b. Đū eart læcht and frōfor eallum þeodum. (Ha.)

S V C

'You are light and joy of all people.'

c. Hit wæs þā swā geworden. (Cre.)

S Vf Adv C Vn

'It was then made so.'

(2) 지시부사 유도문(sentences introduced by demonstrative adverbs)

고대영어 문장은 þā(=then), þær(=there), hēr(here, in this year), þonne(=then), þider(=thither), swā(=so), nū(=now), ār(=formerly), siþþan(=afterwards), oft(=often) 등의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즉 3.2에서 보았던 Andrew(1940)의 지시부사로 이끌리는 경우에는 한정동사가 뒤따라 나타나 동사문이위 구조를 보여 준다.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þær wearð manig mann ofslægen (Chr.)

Adv Vf S Vn

'there many men were killed?'

b. Đā hēt sē cyning sellan Apollonie þā hearpan. (Ap.)

Adv Vf S Vn Od Oind

'The king then commanded (someone) to give Apollonius the harp.'

c. Hēr gefeaht Ecgbryht cyning. (Chr.)

Adv V S

'In this year King Ecgbryht fought'

3) ic hine gelaþode (=I him invited) (Ap.)처럼,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동사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4.5에서 다시 다룬다.

(3) 부정 주절(negative main clauses)

고대영어의 서술문이 부정될 경우, 통상 S+V ...의 순서가 V+S ...의 순서로 바뀌면서 부정사(negative) ne가 동사 앞에 놓이게 된다.⁴⁾ 따라서 고대영어의 부정 서술문은 일반적으로 ne + V + S ...의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동사가 문장내의 두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반 서술문과 차이가 없다.⁵⁾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a. ... ne cann ic ēow ... (Mat.)
 Adv V S O
 'I don't know you'
- b. Ne sceal hunta forhtfull wesan ... (E.C.)
 Adv Vf S C Vi
 'A hunter should not be timid'
- c. ... ne geseah ic nāfre fā burg ... (O.T.)
 Adv V S Adv O
 'I never saw the city'

(4) 독립 wh-의문문(independent wh-questions)

의문사를 수반하는 독립 의문문의 경우 고대영어는 현대영어와 마찬가지로 문장 내의 두번째 자리에 한정동사를 위치시킨다. 고대영어의 의문사로는 대명사로 쓰이는 hwa(=who), hwæt(=what), 부사로 사용되는 hwær(=whither), hwannon(=whence), 그리고 전치사 + hwæt의 사격(oblique) 형태의 의문사인 to hwæs(=whither), for hwon(=why) 등과 또한 형용사 및 대명사로 쓰이는 hwelc(=which) 따위가 있었다.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 a. Hwær gefōre fū forlidenesse? (Ap.)
 Inter V S O
 'Where did you experience shipwreck?'
- b. Hū begæst fū fīn weorc? (E.C.)
 Inter V S O
 'How do you perform your work?'

4) 동사 앞에 위치하지 않은 고대영어의 ne는 전부 'nor'의 뜻의 접속사이다.

5) 주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에 한하여 S + ne + V ...의 형태가 나타나는 예도 있지만 (예 : ic nelle(=ne wille) (E.C. 'I don't want') 드문 현상이다.

c. Hwæt eart fū? (Ha.)

Inter V S

'What are you?'

(5) 부정 명령문

3.2.1.에서 고대영어의 명령문은 현대영어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문두에 위치함을 보았다. 그런데 고대영어의 부정사 *ne*는 항상 동사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명령문이 부정될 경우, 동사가 문장 내의 두번째 자리로 밀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그 예문들이다.

a. Ne ācwell fū fæt cild. (A.I.)

Adv V S O

'Don't kill the child.'

b. Ne sege fū lēase gewitnissa. (Deu.)

Adv V S O

'Don't say false testimony.'

c. Ne bēo fū manslaga. (Deu.)

Adv V S C

'Don't be a murderer.'

(6) 화제화(topicalization)가 이루어진 문장

서술문의 기본어순인 S+V ...에서 동사구의 구성소인 목적어나 전치사구 등이 문두에 놓여 강조될 경우 고대영어는 통상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뒤바꾸어 동사가 계속 문장 내의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4.2에서 고찰하게 되겠지만, 고대영어의 중요한 통사적 특징의 하나였던 이러한 유형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a. Him andwyrde sē fæder. ... (A.I.)

O V S

'The father answered him, ...'

b. Ðæt dyde unhold mann. (Mat.)

O V S

'A hostile man did that.'

c. Mē aweahton fā gecneordnessa fē ic giestrandæg gehierde. (Ap.)

O V S relative clause

'The performance that I heard yeaterday awoke me'

(7) 일부의 종속절

고대영어의 종속절 내에서 한정동사의 위치는 대체로 문미를 취하고 있었지만, 간혹 주절에서의 위치인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종속절의 동사문미구조가 고대영어시대에 이미 붕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And ælc pāra þe gehierþ þās mīn word. (Mat.)

antecedent S V O

'And each of the peopl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b. . op þæt hē becōm tō þæs cyninges healle. (Ap.)

Conj S V PrepP

'... until he came to the king's hall.'

(8) 비인칭 동사 구문

비인칭 주어인 hit(=it)는 고대영어에서 흔히 생략되고 있었는데, 그럴 때의 구문에서도 다음의 예문들에서처럼 통상 동사가 두번째 자리를 취하게 된다.

a. Mē misþyncþ. (Ap.)

O V

'It seems incorrect to me.'

b. mē þyncþ þæt ic alibban ne mæg. (Ha.)

O V noun clause

'it seems to me that I cannot live.'

3. 동사문미 유형

동사문미 유형은 종속접속사에 이끌리는 종속절이나 관계사에 유도되는 관계절에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간혹 and(=and), ac(=but) 등의 등위접속사에 이끌리는 독립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3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영어가 유래하고 있는 원시인 구어와 원시게르만어의 원래의 어순유형인 SOV 구조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경우로서, 고대영어의 가장 두드러진 통사적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접속사에 유도되는 구문

- a.
- Mid þ̄v þe sē cyning þæt geseah.
- (Ap.)

Conj S O V

'When the king saw that.'

- b.
- among þām þe hie þus spræcon.
- (Ha.)

Conj S Adv V

'while they thus spoke.'

(2) 관계대명사에 유도되는 구문

- a. ...
- sē his hūs ofer stān getimbrode.
- (Mat.)

S O PrepP V

'...; who built his house on rock.'

- b. Noe sōþlice dide ealle þā þing þe him God beþeod.

Od Oind S V (F1.)

'Noa truly did all the things that God commanded him(to do).'

(3) 등위접속사에 유도되는 구문

- a.
- And sē wuldorfulla Drihten þā his swiþran hand āþenede.

Conj S Adv O V

(Ha.)

'And the glorious God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 b.
- Ac hē þone dēoflican dēap feor niþer ātræd.
- (Ha.)

Conj S O Adv V

'But he trampled the devil's death far downwrds.'

III.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고대영어 어순은 문장내에서 낱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옳지 않음을 논하고, 또한 고대영어의 어순도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정동사의 위치라는 하나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고대영어의 문장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고대영어 어순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동사

가 대체로 문두, 문2위, 문미의 어느 한 곳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대영어의 문장들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분류에 예외없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위의 Traugott, Mitchell, Andrew 등의 분류에 비해서 보다 많은 문장들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대영어의 문장들을 분류해 본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drew, S. O. (1940). *Syntax and Style in Old English*. New York: Russel and Russel.
- Baugh, A. C. and T. Cable (1933).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4rd ed. Loutledge.
- Bolinger, Dwight (1977). *Meaning and Form*. New York: Longman.
- Brown, JR. W. H. (1970). *A Syntax of King Alfred's Pastoral Care*. Hague and Paris: Mouton.
- Fries, C. C. (1940). *American English Grammar*.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Inc.
- Fromkin V. and R. Rodman(1988). *An Introduction to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Gardner, F. F. (1971). *An Analysis of Syntactic Patterns of Old English*. Hague and Paris: Mouton.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urford, James R. and B. Heasley (1983). *Semantics: a cours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yun, One Song (1983). *An Investigation on Word Order in Old English*. MA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1994). *A Study on Word Order in Old English*.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Leech, G. (1981). *Semantics*. Penguin Books.
- Lehman, W. P. (1978). "The Great Underlying Ground Plans." in idem ed., *Syntactic Typolog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itchell, B. (1978). *A Guide to Old English*. Oxford: Basil Blackwell.
- (1995). *An Invitation to Old English and Anglo-Saxon England*. Blackwell.
- Quirk, R. and C. L. Wrenn (1955). *An Old English Grammar*. London: Methuen and Co., Ltd.
- Robertson, S. (1954). *The Devleopment of Modern English*. F. G. Cassidy rev., New York: Prentice-Hall.

- Shannon, Ann (1964). *A Descriptive Syntax of the Parker Manuscript of the Anglo-Saxon Chronicle: From 734 to 891*. Hague and Paris: Mouton.
- Sweet, Henry (1898). *A New English Grammar*. Part II. Oxford: Clarendon Press.
- Traugott, E. C. (1972). *The History of English Syntax*.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고대영어 작품 약어 목록

A.I.	Abraham and Isaac
Ap.	Apollonius of Tyre
Cae.	The Story of Caedmon
Chr.	The Old English Chronicle
Cre.	The Creation
Deu.	Deuteronomy V
E.C.	Elfric's Colloquium
Fl.	The Flood
Ha.	The Harrowing of Hell
Mat.	The Gospel of Matthew
Oro.	King Alfred's Translation of Orosius's History of the World
O.T.	Old Testament
S.A.	The Legend of Saint Andrew